

'제다이의 귀환'·'반지 원정대', 영구보존 영화 선정

SF영화 '제다이의 귀환' 과 판타지물 '반지 원정대' 가 미국의 영구 보존 영화로 선정됐다.

AP통신은 14일 미국 의회도서관이 이들 영화를 국립영화등기부에 올렸다고 전했다.

의회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보존 영화 목록을 추천받고 있으며 '제다이의 귀환' 과 '반지 원정대' 는 올해 가장 많이 추천된 영화였다. 의회도서관은 국립영화보존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후보작 6100편 중 25편을 선정했다.



▲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 영화 포스터

마지막인 6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하며, 제작 시기상으론 세 번째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2001년 개봉한 '반지 원정대' 는 피터 잭슨 감독이 연출한 '반지의 제왕'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다. J. R. R. 톨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뉴질랜드와 미국이 합작한 판타지 서사영화이다.

공포영화 나이트메어 시리즈 시작을 알린 '나이트메어 온 엘름 스트리트' (1984), 픽사 애니메이션 '월-E' (2008), 23살에 요절한 라틴팝 가수 셀레나의 일대기를 그린 동명의 전기 영화 '셀레나' (1997)도 영구 보존 목록에 올랐다.

영구 보존 목록에 오른 '제다이의 귀환' 은 1983년 작품으로, 리처드 마렌드가 감독을 맡았고, 조지 루커스가 제작을 담당한 동시에 로런스 캐스턴과 공동으로 각본을 썼다. 스타 워즈 영화 6부작 중 시나리오 상

미국 의회도서관은 1988년부터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25편을 국립영화등기부 등재 작품으로 매년 선정해 영구 보존해 오고 있다.

트와이스, 미국 공연 2회 추가



▲ Twice, 사진=JYP엔터테인먼트

걸그룹 트와이스가 네 번째 월드투어의 미국 5개 도시 공연 티켓을 초고속 매진시키고 공연 2회 추가 개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트와이스는 최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에 'TWICE 4TH WORLD TOUR 'III'' (트와이스 네 번째 월드투어 '쓰리') 공연 포스터와 함께 투어 플랜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16일 로스앤젤레스부터 18일 오를랜드, 22일 포트워스, 24일 애틀랜타, 26일 뉴욕까지 미국 5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티켓이 예매 오픈 이후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을 달성했다.

이에 트와이스는 2월 15일 로스앤젤레스의 The Forum(더 포럼), 27일 뉴욕의 UBS 아레나 콘서트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14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빌보드 200' 차트에서 지난달 12일 발매한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 O+T=<3(Formula of Love: O+T=<3)' 가 66위에 랭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자 해당 차트에서 3위에 올라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들은 지난 4일 자 16위, 지난 11일 자 26위를 차지한 데 이어 4주 연속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아티스트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아티스트 100' 에서는 84위를 기록했다.

트와이스는 또 올해 10월 발표한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 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51위, '빌보드 글로벌 200' 92위를 차지했다.

이정재, 올해 최고 한국 배우

이정재가 올해 가장 크게 활약한 배우로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5~28일 전국 만 13세 이상 국민 1700명에게 올해 가장 활약한 영화배우 2명을 뽑아달라는 내용으로 조사한 결과, 이정재가 39.7%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 이정재, 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중

이정재는 넷플릭스 시리즈 사상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에서 주연을 맡아 글로벌 스타로 거듭났다. 이정재는 내년 1월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선 TV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다.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 (SBS)으로 데뷔,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 (SBS) 백재희 역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후 영화에 더 주력했다.

2위는 18.9% 지지를 받은 윤여정이었다.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 로 올해 초 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

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1971년 첫 영화 '화녀' 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일찌감치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3위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 를 통해 할리우드 데뷔에 성공한 마동석(11.4%)이었다. 마동석은 2016년 올해의 영화배우 톱10에 처음 이름을 올렸고, 2018년에 1위를 차지하는 등 5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마블 영화 '이터널스' 에서 '길가메시' 역을 맡아 할리우드로 진출했다. 안젤리나 졸리 등과 함께 2019년 촬영 시작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보다 1년 늦은 올해 11월 개봉했다.

뒤를 이어 송강호가 4위, 이병헌이 5위에 올랐으며 황정민, 공유, 정우성, 김혜수, 조인성이 각각 6위~10위를 차지했다.

1	김	매	2	기				3	가	속	4	도
	수		5	예	6	당	평	야				미
7	로	8	고		9	노					10	분
			금									리
			11	동	아	줄						수
12	처	서									14	거
											15	금
	방			16	화	룡	점				17	정
												강
18	전	염	병								19	부
												동
												산

3		4			9			8	
	5				6			4	9
8				4		5			7
2			6			5			
	8				9			1	7
5	7				8				6
			5					6	3
	2				5		3		
				1		4		8	